

# 익산 야간 볼거리 '눈길'

### 미디어아트 페스타 · 서동축제 등... 화려한 야간관광 프로그램 다채

익산시가 가을밤을 빛으로 수놓으며 야간관광 문화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익산시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도심 곳곳에 조성된 야간 볼거리가 관광객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개막한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오는 10월 9일까지 한 달간 미륵사지의 밤을 밝힌다. 매일 오후 7시 30분 미륵사지 석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쇼를 볼 수 있다. 오는 10일을 제외한 토요일마다 화려한 드론 라이트쇼가 밤하늘을 장식한다.

광활한 미륵사지 내부 동선마다 자리 잡은 이색 야간 경관과 익산비밀물관 외벽을 활용해 백제의 기상을 표출하는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투사되는 영상)는 이미 선선한 가을밤 산책 장소 찾는 시민들 사이에서 야경 명



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미디어아트 페스타와 연계한 '별밤 고백(Go Back)' 투어도 운영된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출발해 고스라과 야가제정원, 중앙시장 상상노리터 등 익산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마무리로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관람하는 야간 중심 관광 프로그램이다. 15일부터 17일까지 금마 서동공원에서 열리는 2023 익산서동축제 역시 야

간관광에 힘을 줬다. 서동축제는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야간 경관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축제장 일원 지상에는 백제 이야기를 담은 유등이 전시된다. 금마저수지에 띄운 각양각색의 유등 행렬도 수면 위로 화려한 빛을 뽐낸다. 열기구에 탑승해 하늘 위에서 구경하는 서동 축제 야간 경관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축제장 방문객들에게는 아광 팔찌와 하트봉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방문객 스스로 걸어다니는 빛이 돼 야간 경관을 어우러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야간 전시 일정에 맞춰 행사장과 인파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자정까지 운영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의 10개 중국 자매·우호도시가 함께하는 제7회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가 14일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에서 개최됐다.

## 군산-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 장쑤성 양저우시서 개최... 우호 · 협력 방안 마련 등 화합의 장

군산의 10개 중국 자매·우호도시가 함께하는 '제7회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가 14일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에서 개최됐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6회를 마지막으로 교류회를 잠시 중단했었다. 하지만, 중국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재개를 위해 상반기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올해 교류회 개최를 신속히 결정했다.

군산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회는 군산중국사무소의 대표적인 행사로 13개 중국 자매우호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도시의 우수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우호·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군산 중심 한·중, 중·중 화합의 장이다.

올해 교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지방정부의 경제·문화 협력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군산대 박재필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탄

소 제로 시대의 한중경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장쑤성(양저우의 성도)과 군산을 연계한 사례 중심으로 해상중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 '새만금 중심 2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조 발표에 이어 양저우 시의 '국제교류의 새로운 국면 및 협력방안', 엔타이 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 지방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 등 3개 도시의 한중 공동 협력방안 주제 발표 및 새만금 소개를 위한 전라북도 대한민국 녹색미래 새만금'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으며, 차기 개최 도시 발표회 행사가 마무리됐다. 다음 행사는 중국 웨이하이 시에서 오는 2024년 열릴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안전한 추석 명절 위해 행정력 집중

### 추석명절대비 시설물안전점검 · 도시경관 일제정비 등 추진

군산시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맞이와 안전을 위한 환경정비를 위해 4개 분야로 나눠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 전까지 재해위험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도시경관정비, 시설물 일제정비, 기타사항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관광객을 맞이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

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과 ITS시설물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방범CCTV 관제를 통한 시민의 안전에도 24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추석기간 동안 주요시설물과 건설투자 등 예초공사,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도로정비 사전 보수 및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또 재난취약시설·위험지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및 포트홀, 교통표지판 정비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채불 방지와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긴 연휴기간 동안 군산을 찾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손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을 찾아오는 한 분 한 분 누구나 안전하게 군산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군산에 많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총회 참석

군산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 관광 도시 간 교류기구인 TPO(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총회를 통해, 군산의 대표 관광 자원에 대한 홍보와 관광도시 군산으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 등을 밝혔다.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이번 TPO 총회에는 국내 15개 도시와 중국의 광저우·싼야, 대만의 타이중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등 15개 해외도시가 참여,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관광 주제로 시장별회의의 전체회의, 세미나 등 공식 행사가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3일 국내의 15개

도시 시장단이 참석한 시장별회의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시간여행 스토리 발굴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한 군산시는, 고군산도도의 국가자질공원 인증, 말도·명도·방축도의 해상인도교 조성과 K-관광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자연관광과 해양레포츠,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 관광명소로 도약"하겠다는 관광 비전을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청소년을 위한 영등 YOUTH페스티벌 개최

익산시가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젊은 축제를 마련한다.

익산시는 오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영등동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주차장에서 청소년 & 청년축제인 '2023 영등 YOUTH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물총 페스티벌(물총 사격, 물총 축구, 팀별 대항전)과 랜덤 플레이 댄스, 재능 오디션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청소년 치치공간 '다꿈'에서 활동하고 있는 11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

에 참여해 음료와 쿠키를 판매하는 카페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총상금 200만원이 걸린 재능 오디션에는 노래, 댄스, 개인 장기 등을 선보인다.

16일 예선과 17일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청년부, 청소년부, 초등부로 나눠 시상이 이뤄지며 종합점수 1위에게는 은누리상품권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오는 17일 오후 8시 열리는 축하공연으로는 79년 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골버스가 독보적 고음의 돋보이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옛기를 전용 '해미' 계약재배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14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옛기를 전용 겉보리 '해미'를 관내농협과 식품 가공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가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약재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역은 비드비림과 염기가 풍부한 간척지로 예전부터 현재까지 보리를 재배해온 적지이자 주산지로 참보리 소비 시장을 개척해왔다. 특히, 흰찰 쌀보리를 지난 1994년부터 재배한 시배지이기도 하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옛기를 전용 겉보리 품종 '해미'는 2006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수량이 많고 쓰러짐에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발아율이 높고 옛기를 품질특성(효소력)가 발아세 등이 우수해 옛기용으로 적합한 가공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공식 유튜브 이벤트 '내 마음의 색깔' 진행

군산시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군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이벤트 '내 마음의 색깔'을 진행한다.

'내 마음의 색깔' 이벤트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중 가장 마음에 든 영상 3가지를 선정해 선정 이유와 함께 게시물을 올리면 피자와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번 이벤트는 유튜브 콘텐츠의 다양성과 시청자 소통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다. 해당 영상은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 출연, 촬영, 편집해 자체 제작한 영상으로, 시의 다양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제작됐다.

참여 방법은 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후, 공무원 I 합께 '해미' 재생목록에 업로드된 영상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 3개를 선정해 선정 이유와 함께 네이버 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달면 자동 등록된다.

당첨자는 오는 10월 5일 군산시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